

목양칼럼

김성광// 강남교회 당회장, 강남금식기도원 원장



축복의 기회에 깨어 있으라

매일 아침 거울앞에서 자신을 다독이던 날...

“오늘은 나의 최고의 날, 기회의 날이다.” 그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몇 번이고 이 말을 반복했다.

몇 년 후 그는 모두가 선망하는 미국 뮤추얼오브 뉴욕 보험회사에서 실적 1위에 오르며 올해의 인물상을 받게 된다.

성공, 행복, 건강, 결혼 등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가 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회를 잡으라. 찰스 1세의 폭정으로 고통받고 있던 영국을 구한 크롬웰(Oliver Cromwell)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군대의 대장이 되어 찰스 1세에 맞서게 된 전쟁터에서도 그는 기도와 성경을 놓치지 않았으며,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회를 잡으라. 최근 북한은 백령도, 대청도 등 북방한계선 인근에 연일 포사격을 가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셋째, 착한 일을 할 기회를 잡으라.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그의 자녀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비법으로 수입의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10%는 착한 일에 사용하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이후 많은 정례식에 참석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고 장준하 선생 장례식 같은 감동을 갖지 못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 평화교회 이봉춘 목사 장례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많은데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신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이다. 얼마 전 작사하신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아이티. 흥미로운 것은 재난이 닥친 아이티를 가장 먼저 도운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었다고 한다.

많은데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신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이다. 얼마 전 작사하신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아이티. 흥미로운 것은 재난이 닥친 아이티를 가장 먼저 도운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이다. 얼마 전 작사하신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아이티. 흥미로운 것은 재난이 닥친 아이티를 가장 먼저 도운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이다. 얼마 전 작사하신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아이티. 흥미로운 것은 재난이 닥친 아이티를 가장 먼저 도운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이다. 얼마 전 작사하신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아이티. 흥미로운 것은 재난이 닥친 아이티를 가장 먼저 도운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었다고 한다.

‘바위샘’ 문정길 목사 소천 8주년 예배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성경원전 학자



바위샘교회(대표 이호윤 목사)는 지난 11일 오후 7시 바위샘교회에서 문정길 목사 소천 8주년 예배를 드렸다.

홍장표 목사 사모로 시작된 추모예배는 정인환 목사(큰빛교회)의 기도, 아가페선교회의 특송으로 진행됐으며 박중수 목사(좋은길교회)가 마 14: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흙을 추어라 해뿔을 기쁘게’라는 제목으로 추모설교를 했다.

계속된 예배는 김용길 목사(인연교육감 후보)가 약력소개를 했으며 이호윤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박중수 목사의 축도로 추모예배를 마쳤다.

故 바위샘 문정길 목사는 1929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1963년 남원중앙교회를 개척했으며 1971년 자유종교모임을 결성해 함석헌, 장준하 선생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1985년 성경원전을 전공해 1990년 성경원전연구원을 개설했으며 2001년 사제 10여인을 회시해 바위샘선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2002년 3월 14일 향년 74세로 소천했으며 기독교 연구, 성경원전 연구, 신본교를 옹호, 성경의 교회와 한국교회 등 많은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

조사

이호윤 목사 // 교단 상임운영위원, 바위샘교회 담임

故 이봉춘 목사 장례식장에서

오직 주님을, 교단을, 교회와 지방회를 위해 헌신...

오래된 일이다. 월간 사상계(사상계)를 창간, 부정 선거를 확정한 자유당과 맞섰고 이로 인해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군부독재가 등장하자 민주화 투쟁에 처절하게 항거했던 고 장준하 선생이 등산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비보는 모든 국민을 슬픔의 도가니에 몰아 넣었던 커다란 사건이었다.

고 장준하 선생은 한국 신학대학 출신으로 개신교 지도자였다. 그러나 5.16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 세력들이 유신을 내세워 3선 개헌을 한 후 영구집권을 시도하였지만 당시 한국의 개신교의 일부 지도자들은 “삼선개헌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목정을 높였던 참담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기에 발인예배는 명동성당에서 거행되었다.

명동성당에 2천 명이 넘는 조객이 참석하였고 발인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이곳 저곳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조객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는 민주화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떠나간 장준하 선생에 대한 아쉬움과 그의 생애에 대한 애잔함이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이후 많은 정례식에 참석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고 장준하 선생 장례식 같은 감동을 갖지 못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 평화교회 이봉춘 목사 장례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고 이봉춘 목사와는 별로 친분이 없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다만 파주지방회와 경기북지방회가 통합한다고 해서 평화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 최초의 만남이다.

고인은 칠전팔기의 집념의 목사였다고 한다. 1994년 파주 평화교회를 개척, 파주 금곡지역에 3000명의 대지를 확보한 후 교회당 신축을 위해 노심초사했으나 군사작전 지역인 관계로 지상에서 3미터 이상 건축할 수 없는 고도 제한에 저촉되어 건물 건축이 불가능하자 이에 굴하지 않고 땅을 파고 지하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1000명을 수용하는 특이한 교회당을 완공하였으며, 2005년 파주지방회장, 2009년 파주지역 기독교연합회장, 같은 해 오산성지기도원 부흥사업의 대표회장, 파주시 성서회운동본부 이사장, 교사협 부회장, 본 교단 부흥사회 부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향년 67세로 소천했다.

발인예배에는 1000여 명의 조객이 참석했으며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 이곳 저곳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설교를 담당한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는 최 목사 모친에 대한 예화를 들려주었다. 최 목사 모친은 최 목사가 10세 때 부친이 625 전쟁 당시 공산군에 의해 학살 당하고 혼자되었다고 한다.

그후 여의도순복음교회 교구장으로 최 목사가 시무할 때 육신처를 하려고 하였으나 회갑잔치를 갖게 될 경우 여의도 교인에게 부담을 줄까봐 회갑잔치를 뒤로 미루었고 칠수 때는 인천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사로 봉직했지만 교인들에게 역시 부담을 줄까봐 강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모친이 소천을 하여 모친에게 효도관광 한 번 보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자기들을 감당치 못해 몸져 누웠을 때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최 목사 천국은 재주도 보다, 진해 보다, 설악산 보다 더 좋은 곳이야. 최 목사가 이곳에 오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 그러므로 괴로워 하지 말고 잘 살아야 해” 하면서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하면서 이봉춘 목사는 이 세상 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홀로 남은 시모님과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합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힘써야 한다고 설교를 했고 울음을 참고 있던 교인들의 흐느낌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곧이어 조사 순서가 되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가장 절친한 친구가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평화교회 김병호 장로였다. 김병호 장로는 “목사님, 남아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홀로 떠나셨습니까?” 하면서 시작된 조사는 절구에 가까웠다.

고 이봉춘 목사에 대한 연민의 정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고인의 약력소개는 3남 성광 군이 하였다. 성광 군은 아버지가 사택에서 설교를 작성한다거나 원고를 쓸 경우 집에는 책임이 없어 어머니 화장대나 밥상을 가져와 사용했는데 자녀들이 근사한 직업을 하거나 사 드린다고 했더니 큰 책임으로 하지 말고 작은 책임을 하달라고 해서 작은 직업을 아버지게 선물하였다며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봉춘 목사는 교회와 파주지역의 복음화와 지방회와 총회를 위해 살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었다. 평화교회에 사무하고 있는 여 전도사는 이봉춘 목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살고 있는 사택마저 은행에 근저당 해서 용자를 받아 교회건축에 전부 사용하여 빚만 남겨 두고 떠나셨다고 안타까워했다.

발인예배에서 교인의 흐느낌은 아마도 평화교회를 위해 몸져 누웠던 고귀한 희생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해 본다. 고인의 장지는 평화교회에서 가까운 오산성지 최자실 금식기도원 공원묘지이며 김원철 목사가 이렇게 마련했다고 한다.

하관예배의 설교를 맡은 김원철 목사(오산성지 최자실 금식기도원장)는 이봉춘 목사가 헬스클럽에서 운동도중 거꾸러져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고 옆에 동행한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죽으면 면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급한 전갈을 받고 헬스클럽을 찾았을 때 가슴을 만져보니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헬스클럽에서 있었던 일을 반추했다.

내 자신에게 반문해 보았다. 과연 나도 소속된 지방회 목회자들이 전원 참석하고 지역주민의 애도 속에 장례 절차를 지를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지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봉춘 목사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보았다.



제58차 총회 제6회 실행위원회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58차 총회 제6회 실행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1) 일시 : 2010. 4. 15(목) 오전 11시
2) 장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90-3 TEL. 02-2675-5181~3)
3) 준비관계로 참석 여부를 총회본부 전화 (02-2675-5181~3) 또는 FAX (02-2675-9839)로 4. 9(금)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Table with 4 columns: Title, Name, Title, Name. Includes roles like 대표총회장, 국내총회장, 교단총회장, 국제총회장, 총서, and names like 조용목, 최성규, 배진기, 양재철, 조승렬, 윤기석.